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2(土)	13(日)
	
흐림 25/29℃	흐림 25/30℃

News

- 정부 식품안전 대책 발표 ②
-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③
- 위창수 첫날 7언더 선두 ⑧

Books

- 세계 역사 바꾼 원순잡이 ⑭

Entertainment

- '닭은 꼬 프로' 너무 많다 ⑧
- 주목 이 영화 '적벽대전'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전복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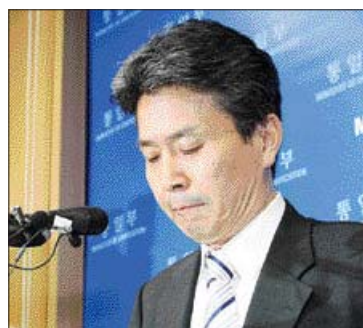
우원각원 창원 55년 역사와 전통

공주대학교
 www.kcu.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50대 금강산 女 관광객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

어제 새벽 4시30분께 산책 중 변 당해
 정부 “진상 규명 될 때까지 관광 중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우리 국민이 11일 북한 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5시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53·여·서울 노원구 상계동)씨가 장전항 북측 구역내 기생바위와 해수욕장 중간지점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숙소인 비치 호텔에서 나가 해수욕장 주변을 혼자 산책하던 중 변을 당했다. 북측은 ‘박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경계 지역에 진입하자 초병이 정지를 요구했고 박씨가 그에 불응한 채 도주하자 발포했다’고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에 설명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의 가해로 사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박씨 시신은 북측의 통보를 받은 현대아산이 수습한 뒤 남측으로 이송, 현재 속초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숨진 박씨는 우측 등쪽에서 가슴 부위 관통상과 좌측 박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숙소인 비치 호텔에서 나가 해수욕장 주변을 혼자 산책하던 중 변을 당했다. 북측은 ‘박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경계 지역에 진입하자 초병이 정지를 요구했고 박씨가 그에 불응한 채 도주하자 발포했다’고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11시30분 현대아산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우선으로 보고받은 뒤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아직 북측으로부터

각 피격 사건을 이날 낮 개원연설 직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에서 통일부에 통보한 게 오전 11시30분이고, 이 대통령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통해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정확하게는 국회 개원연설을 위해 국회로 출발하기 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금강산 피격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간 전면적 대화 제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원연설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남측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된 상황에서 과연 남북 전면 대화를 제의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에 전면적 대화 제안”

추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전면적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제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남북한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관광

■ 미리 가 본 해남 블랑코 비치 인공 해수욕장



백사장 따라 늘어선 야자수 이국적 분위기 ‘서남권 명소’

동양 최대의 인공해수욕장인 해남화원관광단지 내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개장한다. 스페인어로 ‘하얗다’는 뜻의 블랑코 비치는 바다에 수중보트를 띄고 하얀 모래를 깔아 만든 길이 1km의 인공 해수욕장으로, 내달 24일까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한국의 두바이’를 목표로 개장을 앞둔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개장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이곳을 미리 가봤다.

해양레포츠 시설도 갖춰 진입로 일부 미흡 아쉬움

지난 10일 해남읍에서 승용차로 40여분을 달려 도착한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은 막바지 개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진입도로 곳곳에는 수십여대의 공사 차량들이 도로포장과 정비작업에 여념이 없었고, 산책로와 샤워 시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점검하느라 인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해수욕장 뒷편에 설치된 몽골텐트 120동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구분돼 1일 3만~4만원대의 가격에 임대될 예정인데 4~6인이 숙박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규모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산등성이 위로 올라가보니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해수욕장을 에워싸고 있는 100여 그루의 위싱턴 야자수 등 열대수목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껏 연출했다.

‘W’ 모양으로 조성된 해수욕장은 잔잔한 바다와 함께 인공해수욕장의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해수욕장 곳곳에 설치된 분수대도 힘찬 물줄기를 뿜어내며 인공해수욕장의 운치를 뽐냈고,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대형 광장과 벤치, 해양 전망대 등 각종 시설물들도 이미 완비돼 있었다.

또 해수욕장 한켠에선 이번 개장기간동안 펼쳐질 비치 발리볼 등 스포츠 이벤트와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해양 레포츠활동, 맨손 고기잡이, 낚시 등의 체험활동이 손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의 점검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다. 몽골텐트 외엔 이렇다 할 숙소가 없고, 모래사장도 개장 첫 해엔 탓에 그 양이 적어 모래찜질 등을 즐기기에 부족해 보였다.

특히 해남읍에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해남 청룡 이주단지 끝부분 도로는 경사도가 12.8%로, 일반 도로기준인 7%보다 가파르게 조성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장 준비를 맡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 관계자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진입도로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해남군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피부에 활력을 주는 IOPE

IOPE